

메리츠증권, 하이닉스 주식 투자 추천

엘피다의 파산보호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메리츠증권이 3월26일 주장했다.

이세철 연구원은 엘피다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시나리오는 경쟁기업과의 합병 쪽으로 진행됨에 따라 2/4분기 이후 D램의 공급부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메리츠증권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비중확대>를 유지했고, 투자매력 대상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추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26>